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2022. 3. 2. (수)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누리동 2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 · 팩스 02-781-2989

##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 양강구도 재구성보다 핵심 메시지 전달에 주력해야 (2/26)

언론노조 KBS본부는 제20대 대선 보도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합니다. 모니터링단은 신문방송학 석박사, 교수 등 미디어 전문가 그룹으로 꾸려졌으며, 주로 <KBS 뉴스 9>를 중심으로 KBS의 대선 보도들을 모니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 보고서를 집필합니다.

모니터링단의 의견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고서 내용은 가급적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그룹의 애정있는 고언이 KBS 보도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공영방송 저널리즘 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KBS 20대 대통령 선거 보도 모니터

##### 2022년 2월 26일(토) <KBS 뉴스 9>

주말이 되자 선거보도는 3건으로 줄어들었다. 동정보도 2건에, 톨아보기 1건이었다. 동정보도는 여전히 이·윤 후보를 각각 60초 분량에 1대1로 맞추고, 심·안 후보에게 45초 분량을 할애하는 기계적 형식을 유지했다. 이런 식의 시간배분은 자칫 메시지 전달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안철수 후보 보도내용을 보면, 안 그래도 짧은 45초 가운데 17초가량을 ‘서울지역 유세에 집중했다’, ‘안 후보 부인이 직접 선거운동을 했다’는 단편적인 정보를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안 후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겨우 한 마디 정도만 전달할 수 시간이 남는다.

핵심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도 양강구도 위주이다. 이재명 후보는 “안보 강한 대통령”을 말하고,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심판”을 외치지만, 심상정 후보는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안철수 후보는 ‘서울 유세에 집중’할 뿐이다. 양강 후보는 핵심 메시지를 뽑아내지만, 군소후보는 동정을 요약하는데 그친다.

후보 4명이 동일한 시간을 배정받아 함께 토론하지만, 토론이 끝나면 보도는 다시 양강 후보를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분명 중요한 의제다. 하지만 의제 가치가 높아져 선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공방이 벌어지고, 상대후보의 우크라

이나 발언 논란과 매치가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반도 개입 문제를 지적한 건 심상정 후보였다. 하지만 토론 후 공방을 벌이는 주체는 (다시) 민주당이 된다. 언론은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 다 공세와 방어 수위를 끌어올린 데”에만 주목한다. 이런 공방을 전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다. 논쟁을 이끌어내고, 의제화한 당사자가 사라지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거대양당의 공방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